

환율변동이 중국산 농림수산물 수입에 미치는 영향

김 동 민* 임 정 빈** 최 세 균***

1. 서론
2. 환율 변동에 따른 중국 농림수산물 수입분석
3. 조정관세 부과 효과와 대응방안
4. 요약 및 결론

1. 서론

한·중 교역 규모는 1984년 이전에는 미미했으나 그 후 중국의 개방화와 국제정치환경 변화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해 한·중수교 이전인 1991년에 58억 달러에 달했다.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교역액은 8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농림수산물 교역 규모는 1988년 2억 7천만 달러에서 1992년 10억 8천만 달러로 4배나 급증하였으나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농림수산물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1992년 대 중국 교역규모 중 중국으로의 농림수산물 수출비중은 1.2%에 불과함). 이에 따라 한국의 대 중국 농림수산물 무역적자는 1988년 2억4천만 달러에서 1992

년 10억 7천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1992년 국제수지 적자 51억 달러 중 대 중국 농림수산물 무역수지적자가 전체 무역수지적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대 중국 무역적자는 무역수지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농림수산물 주수입선은 미국으로 1980년초 미국 비중이 50% 수준이었으나 한·중 교류가 활성화된 1991-92년 기간중 미국 비중은 30% 이하로 크게 감소한 반면 대 중국 농림수산물 수입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1989년 6.1%에서 1992년 15.1%로 증가하였다. 일부 수입비중이 큰 농산물의 수입선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 중국 농림수산물 수입급증과 수입선 전환은 지리적 근접성, 식품소비의 유사성, 상대가격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대가격차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생산비의 차에 근거하지만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환율 변동에도 크게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은 1980년 이후 급속한 경제개방 및 개혁 정책추진으로 내부기간설비 구축 및 수출확대를 위한 자본재 수입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대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부연구위원.

미 달러에 대한 중국 통화는 계속 평가절하된 반면 한국의 원화는 對美 달러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간 환율은 상대적으로 한국 통화인 원화가 평가절상 되었고 중국 통화는 한국 원화에 대해 평가절하 되었다(표 1 참조). 이에 따라 중국 수출가격과 국내가격간에 가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점진적 수입증가, 수입선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환율 변동이 한국의 대 중국 농림수산물 수입증가, 수입선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부과한 조정관세의 효과와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환율 변동에 따른 중국 농림수산물 수입 분석

2.1. 품목 유형별 수입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농림수산물은 크게 참깨, 고추, 땅콩, 팥 등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용 농산물, 국내수요는 존재하나 국내 공급 부족으로 인한 한약재, 메주, 고사리, 나무젓가락, 도토리 등 다품목 소량 수입 농림수산물,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곡물 및 박류 등으로 대별된다(표 2 참조).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용 농림수산물은 정부의 가격안정정책에 의해 유통공사가 수입을 담당해 왔고 지금까지 수입규제품목에 속했기 때문에 수입규제가 가능해 대 중국

표 1 한·중 대미 환율 비교

단위: 1달러 대 자국통화

연 도	한국(원/달러)	중국(元/달러)	원/元*
1985	890.2	2.94	302.8
1986	861.4	3.45	249.7
1987	792.3	3.72	213.0
1988	684.1	3.72	183.9
1989	678.6	3.77	180.3
1990	716.4	4.78	150.0
1991	760.8	5.32	143.0
1992	788.4	5.75	137.1

* 대미 달러에 대한 양국환율을 이용하여 산출.
자료: 축협중앙회, 「해의축산 통계총람」, 1992.

수입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반면에 한약재 등 다품목 소량 수입 농림수산물은 전체 수입액의 1~2할 정도지만 환율 변동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가 확대되어 수입이 급증하고 대부분 수입 자유화 품목이기 때문에 수입업자, 수입량, 수입시기에 대한 규제가 없어 무분별한 수입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들 품목은 국내산과 식별이 어려워 유통단계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되거나 국내산과 혼합되어 판매됨으로써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한편 사료용 곡물인 옥수수의 주수입선은 1980년대 미국이었으나 지리적 이점에 따른 수송비 절감 및 상대적으로 낮아진 수출가격으로 인해 중국 비중은 1990년 12.7%에서 1993년 11월 현재 86.2%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미국수입비중은 동기간 동안 86.2%에서 13.5%로 계속 감소하여 주수입선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수입선 변화는 환율 변동에 따라 중국 수출가격이 상대적으로 계속 하락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 중국 의존도 심화는

표 2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유형별 수입 현황, 1992

단위: 백만 달러

유형	품목	금액	유형별 금액 및 비중
비축용 농산물	참깨	24.8	49 (4.5%)
	땅콩	11.1	
	고추	8.3	
	팥	4.8	
다품목 소량 수입 농림 수산물	고사리	11.4	163.44(15.1%)
	당면	16.2	
	한약재	14.4	
	조주정	8.6	
	녹용	5.2	
	감초	4.8	
	나무젓가락	4.0	
	밀기울	4.2	
	사향	3.5	
	표고버섯	2.9	
	조기	2.6	
	도토리	2.6	
	꽃감	1.4	
	메주	1.1	
	혼합조미료	1.1	
	골뱅이통조림	0.8	
	고추장	5.1	
삼치	0.24		
피조개	8.2		
		5.6	
사료용 곡물	옥수수	560	656.7(60.8%)
	수수	22.1	
	대두박	32.6	
	면실유박	32.0	
	채종.콜자씨박	10.0	
기타	옥수수(식용)	64.7	210.86(19.5%)
	입담배	5.4	
	기타	140.76	

자료: 농림수산부.

대미 무역마찰 가능성과 안정적 수입이라는 차원에서 다소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3가지 품목 유형 중 비축용농산물은 중국의 환율이 계속 평가절하되어 중국 수출가격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수입 쿼타 지대(quota rent)에 모두 흡수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국내에 영향이 없는 반면 대부분 수입자유화 되어 있는 다품목 소량 수입농림수산물은 중국 통화가 평가절하되어 중국 수출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수입업자들이 더욱 확대된 수입차익을 노려 무분별한 수입이 이루어졌고 사료곡물은 지나친 대 중국 의존도를 초래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환율에 따른 영향이 없는 비축용 농산물은 제외하고 환율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다품목 소량 수입농림수산물 및 수입선이 바뀐 사료곡물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2.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증가 분석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 통화가 평가절하되고 상대적으로 한국 원화는 평가절상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평가절하된 중국은 중국 통화표시 수출가격이 상승하고 수출량이 늘어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환율이 평가절상된 한국은 원화표시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수입수요 증가로 수입량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효과는 일차적으로 환율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중국의 수출가격(한국의 수입가격-수송비)이 환율 변동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지느냐에 달려 있다. 즉 수송비가 일정하다면 한국 수입가격도 동일하게 달라진다. 가격탄성치 등의 여타 조건이 일정할 경우 환율 변동을 수출(입)가격에

반영하여 전가시키는 정도, 즉 환율의 가격 전가도(pass-through of exchange rate changes)가 크면 클수록 환율 변동이 가져오는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¹ 환율 변동이 수출(입)가격에 완전히 전가될 경우 환율의 가격전가도는 1이 되고 환율 변동이 수출(입)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 환율의 가격전가도는 0이 된다. 일반적으로 환율의 가격전가도는 0과 1 사이에 있으며 단기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전가도가 낮고 장기에서는 높다.²

한편 환율의 가격전가도를 유추하는 방법은 첫째, 환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수출(입)가격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함으로써 가격전가도를 계측할 수 있다.³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환율의 가격전가도 크기를 알 수 있고 데이터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사용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입)가격의 전가시차(timing)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다. 그러나 중국이 올해부터 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가격전가도를 직접계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차선의 방법으로 환율의 가격전가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브랜슨(Branson 1972, p.21)에 의해 제시된 탄성치를 이용한 방법이다. 가격전가도(k)는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입)가격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브랜슨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¹ 환율의 가격 전가도는 교역되는 상품의 수요, 공급이동요인, 가격, 기업의 이윤, 기업의 시장점유율 유지 목적, 가격안정화 정책 등에 의존한다. 예컨대 투입재가 교역재일 경우 환율변동은 투입재수출입가격에 영향을 미쳐 초과수요, 초과공급을 이동시켜 가격전가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길항작용(feed back)효과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k = \frac{(dp_x/p_x)}{(de/e)} = 1 - (\epsilon^d/\epsilon^s)^{-1}$$

여기서, P_x 는 수출(입)가격

e 는 환율

ϵ^d 는 수출(입)의 수요 가격 탄성치

ϵ^s 는 수출(입)의 공급 가격 탄성치.

위 식에서 수출수요탄성치가 일정할 경우 수출국의 수출공급탄력성이 탄력적 일수록 환율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즉 환율의 가격전가도는 높게 된다.

이상과 같이 환율의 가격전가도를 유추할 수 있으나 자료의 제약 및 탄력성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격전가도를 알 수 없다. 그러나 환율전가도는 0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환율 변동이 중국산 농림수산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 통화가 평가절하됐을 경우 다 품목 소량 수입농림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 균형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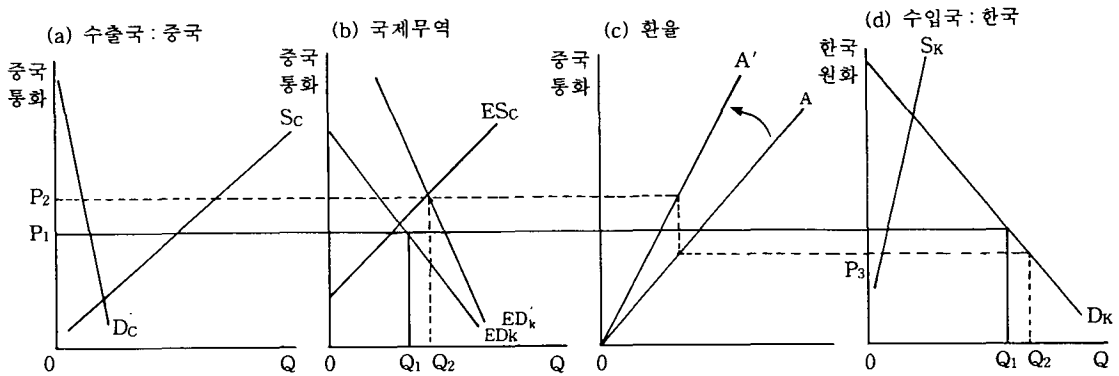
<그림 1>을 보면 (a)는 수출국 중국의 국내수요 D_c , 국내 공급 S_c , (d)는 수입국 한국의 국내수요 D_k , 국내 공급 S_k , (b)는 중국의 초

² 환율의 가격전가도는 0과 1 사이에 있으나 길항작용(feed back)과 대체재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chamber and just(1979)는 1을 초과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³ 환율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환율의 가격전가도를 계측하는 것으로 국가별, 품목별, 장단기 비교 등을 통해 함축성을 찾고 있다.

⁴ 다품목소량 수입농림수산물은 지리적 인접성, 식품소비의 유사성으로 주로 한국에서 수입 수요가 있고 중국에서 수출공급하기 때문에 한·중 2개국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림 1 환율 변동에 따른 무역 변화



과공급 ES_c 와 한국의 초과수요 ED_k 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 때 편의상 양국의 초기균형 환율이 (c)의 OA 라고 가정하면 국제시장에서 초기 국제 가격은 OP_1 이 되고 초기 국제무역량은 OQ_1 이 된다. 이 때 중국 통화가 한국 원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될 경우(역으로 한국 원화가 중국 통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평가절상) (c)에서 OA 는 OA' 로 회전하고 (b)에서 초과수요곡선은 ED_k 에서 ED_k' 로 회전한다.⁵ 따라서 중국의 수출량은 OQ_1 에서 OQ_2 로 증가하고 중국 통화로 표시된 중국 수출가격은 OP_1 에서 OP_2 로 상승한 반면 수입국 한국의 수입량은 OQ_1 에서 OQ_2 로 증가하고 한국 원화표시 수입가격은 OP_1 에서 OP_3 로 하락하게 된다.

통화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중국은 중국정부가 수출보조금을 지불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 반면 평가절상된 한국은 한국정부가 수입보조금을 지불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입이 대부분 자유화되어 있는 다품

목 소량 농림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은 더욱 확대되어 수입업자는 전보다 많은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수입가격하락과 수입급증은 국내생산을 위축시키고 해당품목 생산자에게 소득 감소를 초래한 반면 수입업자의 배만 불리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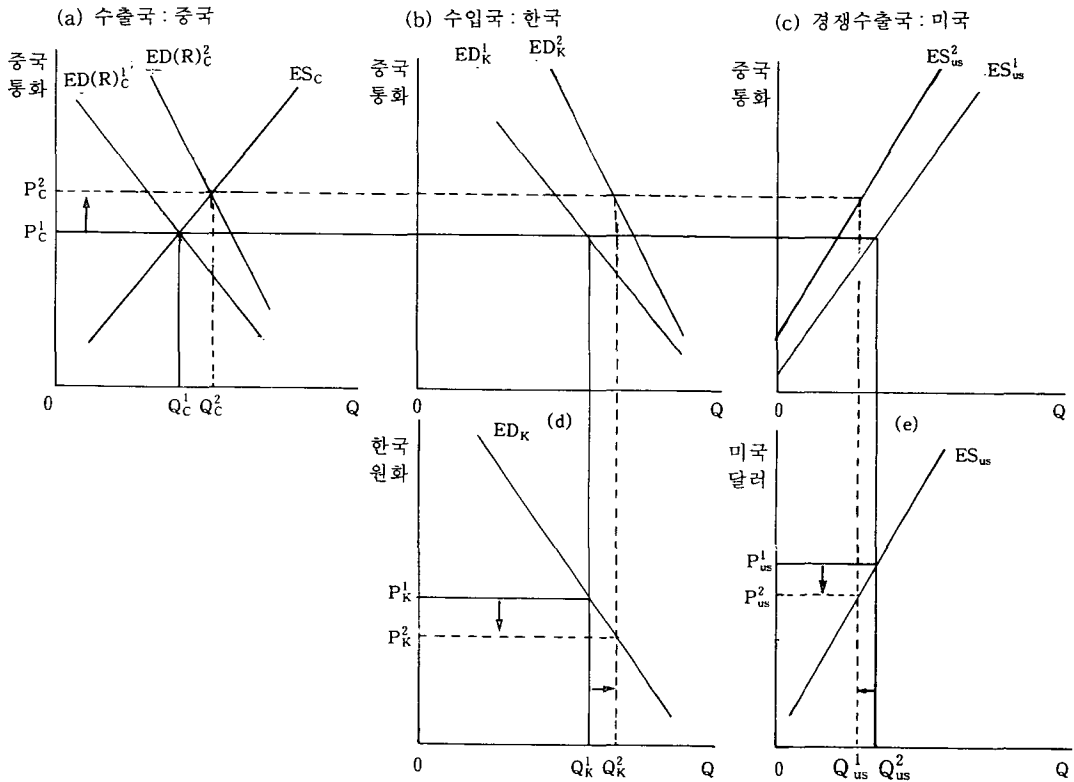
2.3.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선 변화 분석

옥수수 등 사료곡물의 수입선 변화는 수입국 한국에서 수출국 시장점유율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시장점유율(market share)모형을 통해 분석할 수 있으나 시계열자료의 부족으로 계량분석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한국 무역통계연보에 중국은 공산권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기타로 처리되어 오다 1991년 이후부터 중국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부분 균형을 통해 시장점유율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사료용 곡물의 경우도 환율 변동이 수출(입) 가격에 어느 정도 전가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을 달라질 수

⁵ Alston (1992)

그림 2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선 변화



있다. 예컨대 환율의 가격전가도가 1일 경우 상대가격이 변화하여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나 환율의 가격전가도가 0일 경우 상대가격에 변화가 없어 시장점유율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앞에서와 유사하게 환율 변동이 중국 수출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수입선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⁶

수출국 중국 통화가 수입국 한국 원화와 경쟁수출국인 미국 달러에 대해 평가절하 되었을 경우 상대적으로 평가절상된 수입국 한국의 초과수요(ED_K)는 ED_K^1 에서 시계방향

인 ED_K^2 로 회전하고 경쟁수출국인 미국의 초과공급(ES_{us})은 ES_{us}^1 에서 반시계방향인 ES_{us}^2 로 회전한다(그림 2 참조). 이와 같이 수입국 한국의 초과수요 증가 및 경쟁수출국 미국의 초과공급 감소로 인해 수출국 중국이 직면하는 초과수요($ED(R)_C$: 한국의 초과수요에서 미국의 초과공급을 뺀 나머지)는 $ED(R)_C^1$ 에서 $ED(R)_C^2$ 로 증가하게 된다.⁷ 이에 따라 수출국 중국의 수출량은 OQ_C^1 에서 OQ_C^2 로 증가하고 중국 통화로 표시된 중국의 수출가격은 OP_C^1 에서 OP_C^2 로 상승하게 된다(그림 2 (a)참조). 반면에 경쟁수출국인 미국의 수출량은 OQ_{us}^1 에서 OQ_{us}^2 로 감소

⁶ 한국의 사료곡물 수입선은 미국과 중국에서 거의 전량을 수입하므로 수출국을 미국과 중국 2개국으로 한정한다.

⁷ Houck(1986), ch. 16.

하고 미국달러표시 수출가격은 OP_{us}^1 에서 OP_{us}^2 로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증가하는 반면 수출경쟁국인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게 되어 수입선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수입국인 한국의 수입량은 OQ_k^1 에서 OQ_k^2 로 증가하고 한국 원화표시 수입가격은 OP_k^1 에서 OP_k^2 로 하락하게 된다(그림 2 (d) 참조).

옥수수 등 사료 곡물을 국내 필요에 따라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나친 대중 의존도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료용 옥수수는 기후 등 자연 조건, 수출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느 한 국가에 수입을 의존하기보다는 될 수 있는 한 여러 국가로 수입선을 다양화 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중국에 수입을 의존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좀더 안정된 수입선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사료용 옥수수는 국내 필요로 인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조정관세 부과 효과와 대응 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통화의 한국 원화에 대한 평가절하는 원화표시 수입 가격하락 및 수입량 증가, 수입선 변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부과한 조정관세 효과들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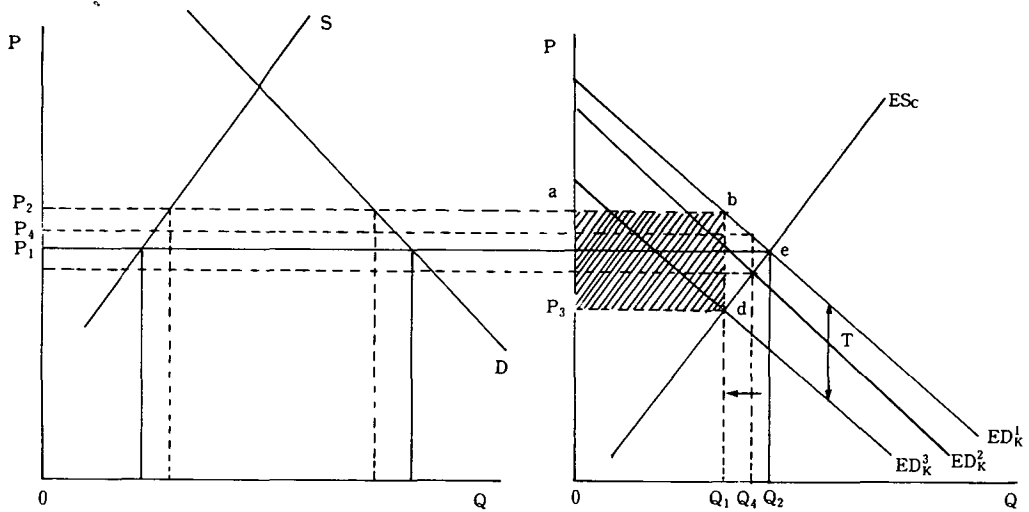
정부는 수입자유화 후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1992. 5. 11부터 14개 품목에 대해 최저 51%(이수수계, 환봉, 바스틱류)에서 최고 100%(열대어, 돔, 미꾸라지, 당근, 표고버섯, 고사리, 꽃감, 무우말랭이, 골뱅이 통조림, 메주, 도토리)까지 부과했다. 그러나 조정관세 부과 후 열대어, 골뱅이 통조림 등 9개 품목의 수입은 감소했으나 미꾸라지, 표고버섯 등 5개 품목은 오히려 수입이 증가해 14개 품목 전체적으로는 1.6% 수입이 증가했다.⁸

이와 같이 조정관세 부과가 큰 효과를 갖지 못하는 이유를 부분 균형을 통해 살펴보자. 한국이 수입급증 중국농림수산물에 조정관세(T)를 부과하면 한국의 초과수요(ED_k)는 조정관세 부과만큼 하향 이동하게 되어 ED_k^1 에서 ED_k^2 로 이동한다(그림 3 참조). 수입국 한국의 수입가격은 OP_1 에서 OP_2 로 상승하고 수출국 중국의 수출가격은 OP_1 에서 OP_3 로 하락한다.⁹ 교역량은 OQ_2 에서 OQ_1 으로 감소한다. 조정관세(T)는 수입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출가격을 하락시키는데 한국의 수입가격 상승분과 중국의 수출가격 하락분의 합은 조정관세(T)와 동일하다. 즉 조정관세 부과는 수출입국 모두에 영향을 미쳐 그 효과는 양분된다. 관세 부과의 파급 효과가 한국의 수입가격을 더 상승시킬지 아니면 중국의 수출가격을 더 하락시킬지는 초과수요(ED_k)와 초과공급(ES_c)의 탄성치에 의해 좌우된다. 만약 양국의 초과수요 및 초과공급의 탄성치가 동일할 경우 한국의

⁸ 1991년 5월~12월 사이 수입 대비 조정관세부과 이후(1992년 5월~12월)수입증가

⁹ Houck (1986), ch 6.

그림 3 조정관세 부과 후 가격 변화



수입가격 상승분과 중국의 수출가격 하락분이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초과수요 및 초과공급 탄성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조정관세를 100% 부과하더라도 실제 보호 효과는 50%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조정관세 품목은 다품목 소량 수입농림수산물로서 양국간 식품소비의 유사성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서 볼 때 주 수입국(large importer)이다. 한국의 조정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입가격 상승보다 중국의 수출가격을 더 하락시킬 것이다. 100% 조정관세 부과 효과는 50%보다도 더 낮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조정관세 부과에 의한 국내생산자 보호 효과는 기대처럼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빚금친 부분 $\square abdP_3$ 만큼의 관세액이 징수되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전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실익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조정관세 부과 후 우리 나라 원화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진다면 조정관세 부과 효과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만약 조정관세 부과 후 원화가 평가절상 되어 초과수요곡선이 ED_k^2 에서 ED_k^3 로 이동하였다면 한국의 수입가격은 OP_2 에서 OP_4 로 하락하게 되고 수입량은 보다 증가하게 된다. 즉 초기 조정관세 부과 후 우리 나라 원화의 평가절상이 있을 경우 원화표시 수입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초과수요곡선은 ED_k^2 에서 상향이동하므로 조정관세 부과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다만 조정관세 부과 후 원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한 초과수요곡선의 상향 이동폭은 평가절상폭 및 가격전이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향후 대 중국 다품목 소량 수입농림수산물이 수입증할 경우 관세인상과 더불어 국민건강과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제의 강화, 포장 및 규격제도의 강화, 위장수입방지를 위한 HS 분류의 세분화 등을 통해 중국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인정돼 산업피해구제조치를 발동할 경우에는 관세인상보다는 수입제한조치가 이루어져야 국내산업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다.¹⁰ 한편 조만간 중국이 GATT에 가입할 경우 한국과 같은 GATT회원국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수입 제한조치 등에 있어 한국은 한층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GATT에서 허용하고 있는 관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관세는 증가세로만 되어 있어 수입가격하락시 종량세에 비해 국내산업보호 효과가 낮았다.¹¹ 특히 대 중국 환율이 상대적으로 한국 원화에 비해 평가절하되는 경우 한국 원화표시 수입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증가세에 의한 관세 부담액은 종전보다 적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표시 수입가격하락과 더불어 관세 부담액까지 줄어드는 모순이 나타남으로써 무분별한 수입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종량세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한·중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 식품 소비의 유사성, 낮은가격 등으로 인해 중국산 농림수산물 수입은 매년 증가해 왔고 향후에도 UR 타결 등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

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환율 변동이 어떻게 중국농림수산물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 농림수산물 수입 증 비축용 농산물은 유통공사에서 수입을 담당해 옴에 따라 환율 변동에 의한 국내외 가격차가 쿼타지대(quota rent)로 흡수되어 큰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들 품목은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계속 국영무역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품목 소량 수입농림수산물은 중국산과 국내산의 구별이 어렵고 대부분 수입자유화 되어 있어 시세차익을 노린 수입업자에 의해 무분별한 수입이 자행되었다. 이들 품목의 원화표시 수입가격 하락 및 수입급증은 중국 통화의 평가절하로 중국정부의 수출보조금 지불과 유사한 효과 및 역으로 환율이 평가절상된 한국정부의 수입보조금 지불과 유사한 효과에 기인한다. 또한 환율

¹¹ 관세의 형태는 과세기준에 따라 수입 품목의 가격을 기초로 부과하는 증가세(ad valorem)와 수입품목의 무게, 길이, 부피 등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종량세(specific)로 대별된다. 만약 수입가격이 하락할 경우 증가세는 관세 부담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저가품의 수입억제 기능이 없으나 종량세는 수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세액이 부과된다. 또한 종량세는 국제시황 및 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시장가격 변동이 작은 반면 증가세는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시장가격 변동폭이 크다. 따라서 종량세는 증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 수입품을 억제하고 국제가격변동에 따른 국내물가 안정효과가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자세한 것은 다음 문헌을 참고(임정빈, 김동민, "농림수산물 종량관세 도입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1993. 12.)

¹⁰ 산업피해 구제조치는 수입제한과 관세 인상 모두가 가능하나 다음 품목(나무젓가락(13 → 53%), 당면(11 → 60%))은 관세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정관세부과처럼 보호효과가 반감되어 그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변동으로 계속 원화표시 수입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부과됨으로써 종전보다 관세 부담액이 계속 낮아져 국내외 가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차익을 노린 수입업자의 무분별한 수입이 이에 가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입 급증 품목에 부과되었던 조정관세는 한국의 수입가격 상승보다 중국의 수출가격을 낮춤으로써 그 효과가 반감되었다. 따라서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관세 인상과 더불어 국민건강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국내산과 혼합 및 위장판매 방지를 위한 원산지 표시제 강화, 포장 및 규격제도의 강화, HS분류를 세분화해야 할 것이다. 산업피해 구제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효과가 적은 관세조치보다 수입제한 조치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입 개방 확대로 저가수입물의 수입 억제를 위한 종량세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 환율 변동에 따라 수입선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뀐 옥수수 등 사료용 곡물은 중국으로부터 싸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지나친 중국 의존도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입에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항상 필요한 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측면과 싸게 수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적절히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부언하고 싶은 것은 앞의 이론적 검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연구가 필요한데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온기운, “엔고가 대일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분석,” KIET, 1993.
- 온승훈, 「국제경제학」, 법문사, 1993.
- 임정빈, 김동민, “농림수산물 종량관세 도입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1993. 12.
- 최양부의, 「한·중 농림수산물분야 협력 방안」, 중국농업시리즈 2, 1992, 12.
- Abbott, P. C., “Modeling Exchange Rate and Macroeconomic Linkage: Lessons from a Structuralist Approach,” *Macroeconomics, Agriculture, and Exchange Rates*, pp.297-320, Westview Press, 1988.
- Alston, J. M. et al., “Exchange Rate Pass through Effects in Agriculture,” *Agriculture and Trade in the Pacific*, Westview Press, 1992, pp. 261-294,
- Bolling, C., “Price and Exchange Rate Transmission Revisited: The Latin American Case,” *Elasticities in International Agriculture Trade*, Westview Press, 1988, pp.163-194,
- Branson, W. H., “The Trade Effects of the 1971 Currency Realignment,”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72, pp.15-69.
- Chamber, R. G., “An Overview of Exchange Rates And Macroeconomic Effects on Agriculture,” *Macroeconomics, Agriculture, and Exchange Rates*, Westview Press, 1988, pp.1-22.
- Chambers, R. G. and Just, R. E., “A Critique of Exchange Rate Treatment in Agricultural Trade Models,” A

- J. A. E*, 1979, 5, pp.249-257.
- Goldstein, M. and Khan, M. S., "Income and Price Effects in Foreign Trade," North-Holland, 1985, pp.1042-1105.
- Houck, J. P., *Elements of Agriculture Trade Policies*, Macmillan Publishing Co., 1986.